

Review

명저산책

마리아테기의 『페루 현실을 해석한 글 7편』

최영균

1. 혁명가의 책

평소 지병을 앓았으며, 40세가 되기 전 요절하였고, 마오주의를 지지하고 스탈린주의에 반대한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혁명의 상징적 인물은 누구일까? 체 게바라가 떠오르겠지만, 한 명이 더 있다.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인상 깊게 본 당신이라면, 게바라가 침대에서 읽고 있던 책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출처: 필자 제공)

『페루 현실을 해석한 글 7편』(Siete ensayos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peruana). 라틴아메리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átegui, 1894-1930)가 1928년에 펴낸 책이다. 영화의 시선은 미동도 않는 안데스 농민의 무덤덤한 얼굴을 향하고, 그 사이로 한 목소리가 마리아테기의 사상을 설명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과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에 관해 말한다. 원주민의 문제는 토지의 문제이고, 혁명은 모방이나 복제가 아니라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출처: 위키피디아)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영웅적 창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¹⁾ 이 장면과 문구가 삽입된 의도는 분명하다. 호기로운 여행자의 가벼운 발걸음이 안데스를 지나며 역사적 무게감을 신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아메리카만의²⁾ 사회주의 혁명을 쿠바에서 성공시킨 주인공 체 게바라의 전환점이 안데스에서 꽃핀 마리아테기의 사상임을 밝히는 것이다.³⁾

마리아테기가 말한 ‘영웅적 창조’란 반(反)서구주의가 아니라 서구와 비(非)서구의 경계를 넘는 사상적 종합을 의미한다. 비록 서구의 모방이나 복제가 되길 거부하며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현실과 관점을 강조했지만, 서구의 사상은 부정할 수 없는, 마리아테기의 지적 바탕이었다. 체 게바라의 전환점이 안데스였다면, 마리아테기에게는 유럽이었다. 마리아테기의

1) 1928년 발간된 문예지 『아마우타』 17호에 실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우리는 아메리카의 사회주의가 모방이나 복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웅적 창조여야 한다. 우리 고유의 현실에 맞춰, 우리 고유의 언어로 인도아메리카의 사회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세대의 신성한 사명이다.”

2) ‘라틴아메리카’는 아메리카를 식민 지배했던 유럽국가(스페인, 프랑스)와의 연관성을 지시하지만, ‘인도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의 가장 오래된 주인으로서 원주민의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3) 마리아테기는 중국과 러시아 등 소위 비서구권의 사회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마오주의에 대한 체 게바라의 지지는 농민 중심의 혁명론을 주창한 마리아테기의 영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삶은 유럽으로 떠나기 전, 유럽 체류, 그리고 페루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나누어진다.

1894년 페루 남부의 모케구아에서 태어난 마리아테기는 9살 때 사고로 왼쪽 무릎에 강직증을 앓았다. 불안정한 건강상태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나갈 수 없었고,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병원에 누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마리아테기는 독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많은 책을 접했다. 14세(1908년)에 들어 처음으로 맡게 된 일은 리마에 위치한 신문사 『라 프렌사』(La Prensa)의 문서수발 업무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세(1914)부터는 후안 크로니케르(Juan Chroniqueur)라는 프랑스식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각종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고 “세기말적이고 퇴폐주의적인”⁴⁾ 시를 쓰며 리마의 살롱을 드나들던 소위 몇쟁이들과 어울렸다. 24세(1918) 때 친구 호르헤 팔콘(Jorge Falcón)과 함께 주간지 『당대』(Nuestra Época), 1년 후 일간지 『이성』(La Razón)을 발간하여 대학개혁과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는 언론활동을 하지만, 1919년 독재자 레기아가 다시 집권하자 폐간된다. 이후 마리아테기와 팔콘은 유럽으로 추방된다.⁵⁾ 그렇게 이탈리아에 도착한 마리아테기는 2년간 유럽에서 체류하는데, 이때의 삶을 이렇게 회고한다. “이곳에서 아내, 그리고 사상을 얻었다.”⁶⁾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급진적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1923년 페루로 돌아온 마리아테기는 곤살레스 프라다 인민대학(Universidad Popular Gonzáles Prada)에서 글을 쓰고 세미나를 하며 전위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서구의 급진적 미학과 사회과학을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전유하고자 노력하였다. 1924년 지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마리아테기는 왼쪽 다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병이

4) 1927년에 쓴 편지에서 마리아테기가 당시의 자신을 평가한 말이다.
(<https://www.marxists.org/espanol/mariateg/1927/ene/10.htm>)

5) 기에르모 로이온이 쓴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의 영웅적 창조』에 자세한 정황이 나와 있다.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던 레기아 정부를 홍보해야 한다는 모욕적인 임무를 받고 떠나긴 했지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유럽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였다. 공교롭게도 레기아의 아내와 마리아테기는 먼 친척이었고, 그 사이에서 피에트라라는 또 다른 친척이 중재역할을 하였다.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두 청년은 사회주의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혁명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페루를 떠나 후일을 도모한다.

6) 이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체 게바라의 목소리로 오마주된다. 그는 리마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리마의 은인이었던 페스체 박사로부터] 음식, 옷과 돈, 그리고 중요한 사상을 얻었다.”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 마리아테기는 1926년 월간 문예지『아마우타』를 발행하고, 1928년에는 페루사회주의당(Partido Socialista Peruano)을 창당한다. 사회주의를 당의 이름으로 정한 것은 지배 엘리트와의 타협을 시도하는 민족주의 진영, 그리고 소련의 지령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산주의 진영과 결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 경계의 사색

정치공학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테기는 실패한 혁명가였다. 노동자 중심의 혁명노선을 주창하던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 국가정체성 담론을 중심으로 중산층 중심의 개혁을 외치던 아메리카혁명인민동맹(APRA)과 같은 민족주의 운동 등 어떤 진영도 마리아테기의 사회주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았다. 마리아테기는 한쪽에서는 유럽과 소련을 따르는 사대주의자 취급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에 매몰된 토호세력이라고 비난받았다.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교조주의를 비판하며 사상적 전선의 한복판에서 고뇌하던 마리아테기의 태도는 ‘서구나 반(反)서구나’라는 이분법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필요하던 당대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았다. 마리아테기를 떠나 민족주의 노선에 가담한 시인 마그다 포르탈의 회고에 따르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민족주의 노선의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Víctor Raúl Haya de la Torre)와는 달리 마리아테기와의 대화는 항상 해답이 없는 상태로 끝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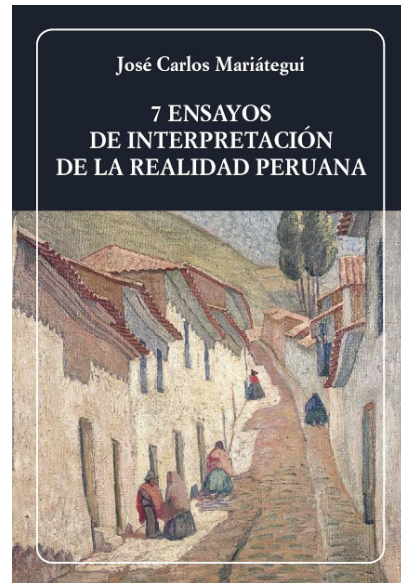
이러한 성향은 『페루 현실을 해석한 글 7편』에서 잘 드러난다. 애초에 한 권의 책으로 낼 계획이 없던 글을 모은 책이다. 그래서 구성이 성기다. 경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반부는 봉건적 대토지소유와 강제노동의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장마다 중복 서술되고 있고, 교육·종교·지리·문학을 다루는 후반부는 스페인의 식민잔재 비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마지막 장은 일종의 문학비평이어서 서술방식이 이전의 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테기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전반부의 세 가지 소론(페루 경제사 개요, 원주민 문제, 토지 문제), 특히 그 중에서 마

지막 장만 읽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문과 잡지에 기고된 글을 다듬지 않고 모은 것이기에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저자 자신도 인정한 바이지만, “처음부터 명확한 의도를 갖고 쓴 글을 읽고 싶지 않다”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책의 서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로부터 해석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끼워 맞춰 현실을 왜곡하는 인위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마리아테기는 안데스의 자연과 정서에 맞춰 살아온 원주민마냥 지식 또한 자생적으로 생겨나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는 페루 문화가 아닌 스페인 문화를 전통으로 전제하고 설립된 제도교육에서 벗어나 독학으로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습득한 개인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분법보다는 종합을 추구하는 마리아테기의 사상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마리아테기는 서구의 과학이 봉건적인 페루 사회에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증주의가 추구하는 객관성의 허구를 꼬집는다. 경제적 토대에 주목하는 유물론의 지지자면서 조르주 소렐의 주의주의(主意主義)적 혁명론을 높이 평가한다. 그로 인해 마리아테기의 사상은 후대 지식인이 자신의 입맛에 맞춰 민족주의, 유럽주의,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반(反)이성적 사회주의 신화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특히 소렐의 영향으로 종교와 신화의 유용성을 다수의 글에서 인정하였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라틴아메리카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바탕”이라는 명성에 흠을 내지 않기 위해 가려져 왔다.

이처럼 마리아테기의 사상을 평가하고 정리함에 있어 왜곡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페루 현실을 해석한 글 7편』만



『페루 현실을 해석한 글 7편』, 2007년 베네수엘라 아야쿠초 도서재단 출판본 (출처 : http://www.catedramariategui.com/syl_libros_yrevistas.html)

을 놓고 보자면, 분명하게 반복되는 한 문장을 꼽을 수는 있다. “원주민 문제는, 토지 문제다.” 언뜻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주장은, 원주민이라는 인종이 아닌 토지라는 경제적 토대로 초점을 돌리는 거대한 전환이었다. 페루의 모든 인종이 함께해야 한다는 정치적 수사만을 반복할 뿐, 사회구조 곳곳에 암약하는 식민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지적하지 못한 이전 세대 논의의 공허함과 단절이었다. 마리아테기는 스페인의 잔재인 식민주의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경제에서는 봉건적 대토지 소유로, 교육에서는 수사학 위주의 비실용적-엘리트주의적 학풍으로, 지리에서는 식민통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개발된 해안도시(리마)로, 문학에서는 과거(스페인의 황금세기)를 회고하고 이를 복원하는 데 골몰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3. 야만의 토대: 대토지소유

스페인 식민통치자는 원주민 공동체의 자생적 문화를 야만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억압해왔다. 하지만 마리아테기 입장에서는 문명이라는 허울 아래 페루를 침입한 스페인 정복자야말로 야만의 화신이었다. 스페인 정복자에게 아메리카는 귀금속의 화수분일 뿐, 새로운 문화가 싹트는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마주친 원주민은 공생·공존할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부릴 수 있는 가축과도 같았다. 개별 원주민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던 토지를 빼앗은 스페인 정복자는 그 땅을 귀족에게 불하하였다. 땅을 빼앗긴 원주민은 봉건영주나 다름없는 스페인 귀족을 위해 토지를 경작해야만 했다. 이것이 라티퐁디움이라고 부르는 대토지소유의 시작이다. 마리아테기는 대토지소유야말로 페루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대토지소유주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노예가 사탕수수와 면화 농사를 통해 창출한 부에 만족했기 때문에 생산기술의 혁신 등 자본가계급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토지소유로 인한 토지 집중은 자본주의적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는다. 대토지가 해체되어 봉건적 농장주의 권력이 소멸

되고 농민이 자유로워져야만, 비로소 도시에 마련된 생산수단으로 농민을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테기는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고 비효율적인 대토지소유와 노예 노동을 도입한 스페인 식민체제야말로 야만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주민 공동체의] 사회주의 경제의 폐허 위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봉건경제의 기틀을 세웠다.”

페루에 침입한 스페인 정복자와 후손은 원주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농민은 강제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 나갔으며,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첩첩산중으로, 일부는 도시로 탈출했다. 농민의 빈자리는 아프리카와 중국에서 데려온 노예로 채웠다. 마리아테기는 이 노예 또한 대토지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 나갈 수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존재가 낮은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리아테기는 예수회 선교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록 원주민을 “시혜를 필요로 하는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지만 적어도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점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회 선교사는 원주민 공동체의 공산주의적 삶의 방식을 존중했고, 더 나은 물질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왔다. 비록 부왕과 결탁한 세속 교회와의 정치적 싸움에 밀려 페루 식민통치의 주류가 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1821년, 식민통치의 총본산인 부왕령이 폐지된 자리에 독립된 공화국이 건설되지만, 스페인 정복자의 후손인 크리오요가 공화국의 지배층을 차지했다. 스페인의 간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부르주아의 역할에 무지한 봉건적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마리아테기는 공화국의 도래가 원주민에게 토지분배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고된 노동을 원주민에게 강제하기는 했지만 귀족으로서 품위를 지키던 스페인인과는 달리, 크리오요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조차 없었다.

공화국의 엘리트는 쉬운 길을 택했다. 구아노, 초석 등 각종 광물자원의 수출이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에 취해 산업화의 의무를 저버렸다. 마리아테기는 말한다. 애초에 독립은 원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독립의 대의는 백인 정복자의 후손인 크리오요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 서구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자원 창고 역할에서 벗어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국은 없었다. 1차산업 생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써 연명하는 식민시대 경제구조의 기본 틀은 21세기에 들어서도 건재하다는 점에서,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산업 중심의 근대화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마리아테기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페루 경제를 분석한 전반부에서 마리아테기는 봉건주의와 식민주의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자본가와 근대적 엘리트가 성장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절망한 마리아테기에게 하나 남은 희망은 아이유(ayllu)라고 부르는 원주민 농민 공동체였다. 경작과 소출의 분배를 공동으로 행하는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이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게다가 이 생산양식의 효율성이 대토지소유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목도한 마리아테기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도 근대적인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마리아테기는 “노동은 감정에 의존한다”는 소렐의 말을 근거로 생산성이 노동자의 감정과 상태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대토지소유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가족 등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반강제적으로 노동하는 상황이기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아이유 같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노동은 집단적이기에 생산성이 오히려 높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근대화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이렇듯 마리아테기는 “나태하고 야만적인” 스페인의 봉건적 정신보다 원주민 공동체의 집단의식이 우월함을 주장한다. 페루의 토대를 갉아먹는 봉건성을 밝힌 전반부에 이어서, 교육과 종교, 문학의 영역에 창궐한 식민 유산의 문제가 서술된다.

4. 야만의 상부구조: 구름 위의 교육과 종교

마리아테기는 스페인 정복자와 후손이 만들어온 페루 정치경제의 봉건성은 토지분배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하는 한편, 교육의 근대화 또한 가로막고 있었다고 말한다. 독립된 공화국의 지배층은 수사학을 중심으로 편성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일반 공교육의 필요하

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단어만 오갈 뿐 실체는 건들지 못하는 편집 증적 현학 전통”⁷⁾이 지배적인 교육의 현실은 과학적 사고를 발현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마리아테기는 경제와 과학을 강조하는 미국의 실용적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화국 엘리트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문예교육 위주인 프랑스 모델을 따름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마리아테기는 종교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 스페인의 종교, 가톨릭은 단순히 근대화의 발목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반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며 과거로의 강압적 회귀를 시도했다. 독립 이후에도 가톨릭의 영향은 건재했다. 반면 마리아테기는 개신교의 청교도적 정신을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미국 개척사를 그 사례로 제시한다. 칼뱅이 주창한 예정설은 재산 축적이 곧 구원의 증명임을 설파함으로써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외에도, 많은 측면에서 북미와 중남미의 상황이 대비된다. 마리아테기는 북미에는 원주민 문명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곳에 발을 디딘 모든 유럽인은 온전한 개인이 되어 오로지 자연과의 사투에만 힘을 쏟을 수 있었다. 타인의 것을 강탈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만으로 땅을 일궈야 하는 상황은, 북미인에게 자본가적 모험정신을 심어 주었고, 자연을 정복함에 있어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칼뱅주의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

반면, 중남미에는 마야, 아스테카, 잉카 등 여러 원주민 문명이 있었다. 야망에 찬 스페인인은 자연에 앞서 미지의 화려한 문명과의 조우에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스페인인은 무력으로 원주민을 정복했고, 착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또한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선교가 주목적이 된 가톨릭 종교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원주민의 정신세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톨릭은 이미 종교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관료적 지배체제의 일부가 되었다. 식민지배체제가 안정적으로 꾸러지자, 야망보다는 나태가

7) 당대의 명망 있는 교육자 마누엘 비센테 비야란의 말로, 마리아테기는 실용주의 교육관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하였다.

중남미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마리아테기는 페루 자유주의자가 무능하고, 봉건세력의 건재하기 때문에 정교분리를 통한 근대적 요소의 도입이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페루 자유주의는 양상한 정치경제의 바탕 위에서 종교가 지배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임한 마리아테기는 친미주의자의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실용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관념적 문화를 비판했다. 그렇지만 마리아테기가 생각한 혁명 모델이 미국 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페루를 짓눌러온 봉건주의와 식민주의가 지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페루는 지배층의 무능으로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질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대화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마리아테기에게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를 위협하는 새로운 제국이었다. 하지만 교조적으로 반미를 외치기보다는 미국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테기는 원주민 공동체의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잉카 종교의 세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실의 문제를 방관하고 개인의 열반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규범으로서 공동체의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집단노동을 조직하는 잉카의 종교는 공동체의 뿌리인 토지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마리아테기는 공동체와 토지,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범신론적 사고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5. 야만의 중심: 리마

지금껏 마리아테기는 스페인 식민통치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말해왔다. 스페인은 페루를 포함하여 중남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식민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봉건주의의 잔재를 남겼고, 이것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등 근대화 요소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식민통치의 중심인 수도, 리마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마리아테기 입장에서, 리마는

해안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스페인 정복자 입장에서 입지가 좋을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수도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리마는 경제적 수도로서 기능할 수 없는 도시이기에 리마를 중심으로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리마는 ‘자연스럽게’ 모든 길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다. 여기에서 리마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마리아테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목

축과 농업의 시장이자 항구이다. 모든 무역로가 이곳으로 연결된다. 반면 리마는 페루 상품의 귀결점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페루 해안을 따라 존재하는 항구를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가야만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플라타 강을 통해 모든 육로와 수로가 집결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리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형적인 조건상 원료 공급이 용이하지도 않고, 공산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다. 리마는 런던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달랐다. 육로가 곳곳으로 뻗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빈처럼 금융중심지로 기능할 수도 없는 조건이었다. 마리아테기는 스페인 정복자가 귀족 사교장으로 건설한 리마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페루의 경제적 근대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했다.

페루 공화정부의 관료는 지형과 경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채로, 봉건세력과 타협하며 중앙집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중앙중심과 지방분권 사이의 간극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에 반해 마리아테기는 리마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중앙집권의 인위성을 비판하는 지역주의자다. 하지만 마리아테기가 제안하는 지역주의는 연방주의와 다르다. 연방제는 각 지역 간의 정치적 합의일 뿐이다. 따라서 지역 구분의 부자연스러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리아테기에게 식민 지배가 만들어낸 페루의 기형적 구조는 구분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테기는 도시와 지방의 구분을 폐지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지역주의



리마의 위치(출처: 위키피디아)

라는 말에 명백히 드러나듯, 마리아테기의 지향은 오히려 그 반대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분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마리아테기는 해안과 산악지역, 도시와 지방의 본원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교류함으로써 각 지역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집권주의적 지방분권화’라는 소제목에 잘 드러나듯, 통합을 위한 분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공간을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 쫓겨난 원주민과 땅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마리아테기는 자신의 새로운 지역주의에 인디헤니سم오(indigenismo)라는⁸⁾ 귀결점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역주의는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 이는 안데스와 고산지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주의는 무엇보다 인디헤니سم오를 따라야 한다. 과거의 낡은 지방분권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6. 야만의 기록과 극복: 페루의 국민문학

마리아테기는 『페루 현실을 해석한 글 7편』 마지막 장에서 페루 문학에 남아있는 스페인의 잔재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한다. 앙헬 라마의 용어로 중남미의 대표적인 ‘문자도시’ 리마에 갇혀 스페인 황금세기 문학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는 과거 지향적 경향으로는 안데스 토착의 정서를 반영하는 진정한 국민문학을 배출해낼 수 없다는 것이 마리아테기의 주장이다. 리카르도 팔마, 리바 아구에로,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 마리아노 델가르, 아브라함 발델로마르 등 많은 페루 작가가 마리아테기의 비평 법정에서 평가를 받는다. 마리아테기는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페루의 국민문학, 즉 토착민(indígena) 문학의 개요를 그려나간다.

원주민의 언어를 차용하고, 스페인의 귀족문화를 비꼬거나 단호하게

8) 정치,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원주민을 라틴아메리카의 주역으로 내세우는 사상이다.

비판하는 등 기존 작가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마리아테기의 눈에 아직 페루의 문학은 낭만적 엘리트 메스티소의 ‘토착민지향’(indigenista) 문학이다. 이런 토착민지향 문학은 과도기에 지나지 않으며, 일상의 입말과 정서를 체화한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원주민이 창조해낸 진정한 토착민 문학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아테기가 보기에, 이런 과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작가는 세사르 바예호(César Vallejo)이다.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원주민의 삶을 상징으로 노래하는 바예호의 시는 원주민의 범신론, 애니미즘을 잘 표현하고 있다. 원주민을 이국적으로 바라보며 이상화하는 토착민지향 문학에서 벗어나 원주민뿐만이 아닌 전 인류의 비애를 화려하지 않은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바예호는 마리아테기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장기간 체류했으며, 프랑스 아방가르드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안데스의 토착 정서를 상징주의라는 전위적 기법으로 표현해낸 바예호의 시에서, 마리아테기는 자신의 숙원이던 서구와 비서구의 종합이 미학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땅과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던 원주민을 연결하는 언어가 바예호와 같은 작가의 노력으로 풍부해질 때, 페루의 진정한 국민문학이 탄생할 것이라고 마리아테기는 말한다.

끝으로, 마리아테기의 『페루 현실을 해석한 글 7편』은 중남미 지성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대 학문의 엄밀한 기준으로 본다면 통계자료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과 현실을 종합해 내는 마리아테기의 태도는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최영균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